

祖師圖 服飾에 관한 研究

—전라도지역 사찰 소장 조사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안 명 속

目 次

I. 서 론

II. 조사도의 개념 및 이론적배경

III. 조사도 복식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祖師圖란 고승들이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초상화로 그린 것으로서, 조사도 복식에 관한 연구는 큰 범주로 보면 불교복식에 관한 연구이다. 불교복식의 연구자료로는 문헌이나 현존유물, 불상, 불화, 조각 등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도 복식을 연구하게 된 것은 초상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사실적 표현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시에 그 모습을 그려놓지 못한 경우는 상상에 의해 진영을 조성하지 않고 명호를 쓴 위패로 대신하였던 것¹⁾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도 복식의 연구는 불교복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복식연구 대상의 주재료인 섬유는 나무나 돌보다 훨씬 부식이 심하고, 현존하는 유물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대가 올라갈수록 문헌, 회화, 조각 등이 복식사 연구의 주된 자료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회화, 조각은 인물과 제작년대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나치면 올바른 판단이 어렵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현존하는 조사도는 많이 있으나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조성의 성격상 각 사찰마다 흩어져 소장되어 있으므로, 우선 전라도지역 사찰 소장의 조사도를 중심으로 그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도 3개 사찰(김제 금산사·고창 선운사·완주 화암사)에 조사도가 소장되어 있다는 기록이²⁾ 있어 몇번 찾아갔으나 분실되었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해 전라남도 사찰 소장의 조사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대상인 조사도의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송광사 국사전의 조사들과 선암사의 몇 조사들만이 고려시대 승려의 진영이고 대부분의 조사들은 조선시대 후기의 승려 진영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조사도의 조성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사들을 상상에 의해 그린 것이 아니라 생존시의 실제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면 조사들의 생존시기와 조사도 조성의 시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초상화의 성격상 사실적 표현을 했을 것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승려들이 입었던 법복과 조선시대 착용했던 법복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도에 나타난 불교복식인 가사와 장삼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사의 형태와 색상, 문양, 착장보조장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장삼은 대부분의 조사상이 착상을 하고 있으므로 색상과 문양은 알 수 있으나 형태 파악은 어려울 것 같다. 회화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색이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착장법이나 자세한 세부적 표현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II. 조사도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祖師圖란 德 높은 高僧의 모습을 그린 肖像畫로, 대상인물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정으로 그려지는 기록화이므로 그의 겉모습과 내면의 정신세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한된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보통 고승들의 초상화를 眞影이라고 하는데, 진영이란 말은 초상화 또는 불화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인물의 본질을 의미하는 眞과 겉모습을 본 뜬 影이 합해서 된 것³⁾이다.

고승진영은 불화로서 조사 신앙의 예배 대상이 된다. 禪宗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봄으로써 成佛이라는 자아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 하여 특정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석가가 가섭에게 拈花示衆의 미소로 법을 전하였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師資相承을 경전보다도 중시하였다. 그래서 스승을 所依經典처럼 받들게 되었고 깨달음의 경지가 담겨 있는 모습을 그린 진영은 조사 신앙의 예배대상이 되었다.⁴⁾ 이러한 사상적 배경 아래 조성된 진영은 한 사찰에 수십점씩 봉안되기도 했다. 종파의 시조나 사찰의 창건주를 비롯하여 역대 고승대덕들의 모습이 비단 화폭에 채색으로 그려져 진영당에 모셔진 것이므로 물에 구애받지 않고 조성되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진영 조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813년에 세워진 단속사의 신행선사비문에서 찾을 수 있다. 신행선사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원효, 의상, 보덕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모두 고려시대의 일

이다. 조사도는 대체로 記를 적지 않고 像主의 명칭만 기록하고 있어서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드물다.⁵⁾ 이런 가운데 시기가 올라가는 정확한 것으로 송광사 16국사 진영이 있어 고려시대 조사도 복식 연구에 도움이 된다.

연세부터 고승의 진영이 예배의 대상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봉안되기 시작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원효의 진영이 원효방에 모셔져 있었다고 했으며 대감영당, 보제영당, 선각진당, 나옹진당 등의 기록도 보이고 있어⁷⁾ 초기에는 대체로 개산조사나 덕높은 고승의 진영이 그의 이름을 딴 일정한 장소에 각기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도가 모셔져 있는 곳은 각 사찰마다 달랐으나 주로 眞影堂, 影閣, 影子殿, 祖師殿, 國師殿, 凝香閣 등에 모셔져 있고 그 외에 羅漢殿이나 三聖閣에 모셔져 있기도 하다.

III. 조사도 복식

불교복식이라 하면 범복인 가사와 우리나라에서 기후관계로 입은 전통적인 옷인⁸⁾ 장삼을 들 수 있다. 조사도에서 볼 수 있는 복식도 가사와 장삼으로 가사는 형태, 색, 크기, 문양, 袈裟 着裝補助 장식(纓子) 등을 알 수 있고 장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형태는 잘 알 수 없어 색과 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영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사는 원래 장방형의 布이나, 이것을 확장할 때는 신체에 감아 한쪽 끝을 왼쪽 어깨에 얹는 형으로 입어, 끈과 단추, 갈고리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사의 소재가 호화롭게 되고, 겹쳐 감아 입기 어렵게 되자 끈류를 붙이고 가사를 왼쪽어깨에 달아매는 형으로 착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3색영자라고 불려 紅·黃·綠·靑·紫 등의 색이 선명한 끈을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경남 통도사에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 가사에 그 흔적이 있는 것으로(선덕왕 643년) 보아 그 즈음부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전해지지만 아직 불

확실하다.⁹⁾

조사도 복식 연구의 대상 사찰로는 송광사, 선암사, 백양사, 대흥사, 홍국사, 도갑사, 원효사, 원광대 박물관 등 8개로 간단하게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고 총괄적인 사실적 보고는 표로 제시하겠다.

송광사 조사도에 관한 복식은 이미 연구¹⁰⁾한 바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사전 조사도의 가사의 색은 다른 사찰 조사도에서 나타난 것보다 홍색, 녹색, 황색계통의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고, 대부분 條袈裟이며 貼相袈裟이다. 자세한 내용은 既論文을 참고하기 바란다.

선암사에는 기록¹¹⁾에 의하면 40여점의 조사도가 있다고 했으나, 현재는 절반 가량이 유실되어 21점의 진영만이 남아 있다. 가사는 홍색이며 조가사와 첩상가사가 있으며, 호암당진영(도 1)이 홍록첩상 가사이다. 특이한 가사 표현은 없고, 조가사임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를 표현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장삼의 색은 옥색, 회색, 초록색계통이 사용되었다.



(도 1) 호암당진영(1664~1738년)
(선암사)

백양사의 조사도는 모두 31점으로 가사의 색은 한양대선사와 덕숭선사만이 피색이고 대부분이 홍색이며, 바탕에 화려한 금박무늬가 있는 것과 문양이 없는 것이 있다. 가사의 조도 대부분이 없어 자연스런 주름으로 되었으며, 조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늘땀으로 하거나 아주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표현이어서 사실성이 없고, 또 다른 것에는 없는 표현인 벽돌을 쌓은 듯한 형식적인 조표현의 가사도 있다. 가사의 크기는 연담대선사의 것은 작은 소가사이고, 몇명의 것은 아주 큰 가사도 있다. 가사 확장보조 장식은 끈과 다양한 종류의 빗장장식이 보인다. 장삼의 색은 회색계통, 초록색계통, 파랑색 등이 있고, 장삼 바탕의 문양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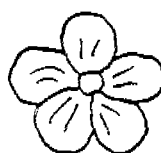
대흥사의 조사도는 표충사, 보련각, 조사전에 나누어져 봉안되어 있다. 표충사의 조사도는 사명당, 서산대사, 뇌묵당으로 이들의 가사는 색은 홍색이며 조가사이고 문양은 없다. 장삼의 색은 연회색, 파랑색, 진회색이고 역시 문양은 없다. 보련각의 조사도는 화면에 한사람만을 그린 독상이 아닌 두사람 이상을 한 화면에 그린 군상으로, 7개의 군상 조사도가 있고 모두 154명의 조사들이다. 원래 한사람씩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의 걸 모습 뿐아니라 정신적인 내면세계까지를 그렸으나, 후대에 와서 조성해야 할 선조들의 수가 많아 집에 따라 편의상 여러사람을 한 화면에 그렸다.



(도 2) 6번째 군집 조사도
(대흥사 보련각)

군상의 경우는 대홍사 외에 쌍계사에도 있는데 각 개인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비슷한 얼굴에 각각 이름만을 써넣고 있어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6개의 군집 조사도는 대부분 홍색가사에 진회색 장삼이고, 가사는 조가 있는 것이 없는 가사보다 더 많으며 문양은 없다. 가사의 크기는 대부분이 소가사이나, 6번째의 군집 조사도(도 2)의 가사는 대가사이다. 마지막 7번째 군집 조사도는 12분의 선사 중 해암선사만이 밤색 가사이고 나머지 11분은 분홍색가사를 입었으며, 모두 조가사로 문양(도 3)이 있다. 가사의 문양으로는 무궁화꽃잎 문양과 직물의 직조 문양같은 것이 있다. 가사 착용보조 장식은 전형적인 끈 영자이다. 장삼은 파랑색 계통으로 문양이 있으며, 문

양의 종류로는 용무늬, 목단, 국화꽃잎 같은 다양한 꽃잎무늬, 풀이나 나뭇잎 등의 다양한 문양(도 4)이 있어, 다른 장삼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문양들이다. 조사전의 조사도는 역시 3개의 군집 조사도로 앞의 보련각보다는 한쪽에 실려있는 진영들의 수가 적다.



〈꽃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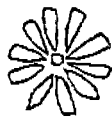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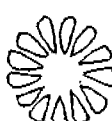


〈직조모양〉

(도 3) 가사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



〈용모양〉



〈꽃모양〉



〈잎모양〉

(도 4) 장삼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

홍국사에는 7분의 조사도가 모셔져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조사들의 복식은 복원된 것으로 후기에 다시 제작된 것이다. 가사의 색은 홍색이고, 조가사와 첩상가사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름진 가사가 있다. 가사에 문양이 있는 것이 두개 있으며, 그 문양은 꽃문양과 잔잔한 무늬이다. 착용보조 장식은 우룡대선사만이 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분은 빗장장식이다. 장삼의 색은 초록색계통과 파랑색, 진회색 등이 있으며, 진녹색 장삼에 무늬가 있다.

도감사의 조사도로는 수미왕사진영과 도선국사진영이 있다. 수미왕사진영은 홍색가사에 조표시가 없으며 가사 바탕에 잔 꽃무늬가 있다. 장삼은

군청색이고 바탕에 무늬가 없으며 장삼의 테두리에 다른색 선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도선국사진영은 진홍색가사에 꽃무늬가 있으며, 조는 없다. 장삼은 초록색이고 문양도 없고 소매와 단 처리에 파랑색 선을 둘렀다.

원효사에는 해동화엄 초조 원효대사의 진영이 있어 주황색 가사에 괴색으로 첩상을 두른 첩상가사를 입었고, 회색 장삼을 입었다.

원광대 소장의 조사도는 8점이며, 모두 홍색의 조가사로 형식화된 조표현도 있으며 문양은 없다. 특히 청허대화상의 진영은 가사의 조를 황금색으로 표시하였다. 장삼의 색은 파랑색, 옥색, 고동색, 진회색 등이고 문양은 없다.

〈표 1〉 각 사찰 소장 조사도의 복식

사찰	조사도		가 사					장 삼			비 고	
	소재	수	색	문 양	형 태	보조장식	크 기	기 타	색	문 양		기 타
송광사	국사전	16	홍·녹·황	·가사 바탕은 문양없음 ·첩상에 小花무늬 있음	·모두 조가사이 며 첩상 가사	·빗장(15) ·끈(1)	中		초록·분홍	없음		1780년에 그려짐
	풍암명각	42	홍	·대부분 없음	·대부분 조가사 (회화적 표현)	·빗장 ·끈	中·大		회·초록· 군청·고동	없음		·풍암세찰(1688- 1767)과 그 문화 고승들의 진영이 주류임
선암사		21	홍		·조가사, ·첩상가사				옥·회·초록			·대각국사와 도선 국가 영정은 1805 년 畫師道日이 重 修 ·서산대사, 사명, 무학, 지공, 나옹 화상의 영정은 1904년에 봉안
백양사		31	·홍색 ·피색(한 양 대선사 와 덕숭선 사)	·화려한 등근금박 무늬와 ·小花무늬 있음.	·6개만이 조가사 표현은 아주 형식적, 벽돌쌓은 듯한모양 도 있음	·빗장 ·끈	小·中·大		회·초록· 파랑	·花문양 많음		
대흥사	표충사	3	홍	없음	·조가사 ·자연스런 drapery 가사	·끈 ·빗장	中		회·파랑	없음		
	보령각· 군상	7	홍·피	·꽃 ·직물의 직조표시 하는듯한 모양	·조가사	·끈	小·大		회·파랑	·다양한 문양 있음 ·용 ·물 ·나뭇잎 ·꽃		
	조사전· 군상	3	홍	·없음	·조가사	·끈	小		회	없음		
흥국사	불조전	7	홍	·꽃모양 ·小花문양	·조가사 ·첩상가사 ·drapery 가사	·빗장 ·고리장식	中·大		초록·파랑	·대부분 없음 ·꽃무늬 (1)		
도갑사	국사전	2	홍	·小花문양	·자연스런 주름진 가사	·빗장	中		초록·파랑	없음		
원효사	개산조당	1	주황	·없음	·첩상가사	·끈	中		회	없음		
원광대학교	박물관	8	홍	·없음	·조가사	·빗장 ·끈	中·大		초록·군청 ·옥·파랑	없음		〈조선시대〉 ·사명대사 영탱 (1544~1610) ·뇌록대사 영탱

각 사찰의 조사도 복식을 가사와 장삼의 형태적 특징과 색상, 문양의 유무나 종류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독상과 군상이 있어 많은 수의 조사들이 있으나 각각 열거하는 것보다 대부분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으므로 조사들을 각각 설명하지 않고 사찰 중심의 큰 무리로 공통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IV. 결 론

조사도의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리해 살펴보면 가사의 색은 주로 홍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특이하게 분홍색, 황색, 현재 조계종 가사색인 피색, 고동색 등도 사용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가사의 색은 홍색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율전에 있듯이 석존 자신도 항상 피부색의 가사를 입으셨다고¹²⁾ 한 것처럼 가사의 색도 살빛과 비슷한 분홍색이나 황색 등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사의 형태도 율전에 근거를 둔 조가사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첩상가사도 많았으며, 조를 표현하지 않은 가사는 자연스런 드레퍼리식의 주름을 잡았다. 가사의 크기도 아주 작은 소가사에서 큰 대가사 및 중간 크기의 가사도 있었으나, 몇조 가사인지는 주로 앉아 있는 모습이므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사 착장보조 장식인 영자는 끈에서 빗장장식, 버클 형태로 발전되어 사용되어 발생당시의 실용적인 사용보다 현대는 장식, 상징화되었음을¹³⁾ 알 수 있다. 조사도에서 나타난 영자는 조선후기 것으로 대부분 끈과 빗장장식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의 경우 율전에 근거한 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고유복식이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장삼은 우리나라에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불교복식으로 입혀진 것으로 가사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어 회색계통, 녹색계

통, 분홍색, 군청색, 파랑색, 옥색, 고동색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삼의 세부적 형태는 조사도의 고승들이 대부분 좌상이므로 알 수 없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다. 다만 연구대상의 조사도가 조선시대 후기일 것이므로 이 시기의 현존유물인 사명대사 장삼의 경우와 같이 상의하상식의 직철 형태이었을¹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도 복식도 가사나 장삼의 특징에 있어서 현존유물이나 문헌에서 나타난 사실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라도 사찰 소장의 조사도 복식을 보고서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문양의 종류와 그 의미, 색상의 정확한 명칭과 분석 등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1) 빗깔있는 책들 103~19, 고승진영, 대원사, 1990, p.49.
- 2) _____, _____, p.28.
- 3) _____, _____, p.11.
- 4) _____, _____, p.8.
- 5) _____, _____, p.14.
- 6) 빗깔있는 책들 110, 통도사, 대원사, 1991, pp. 105~106.
- 7) 빗깔있는 책들 103~19, 고승진영, p.24.
- 8)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p.59.
- 9) 保刈禎子, やさしい『御袈裟』の話, 近代文藝社, 1994, pp.51~52.
- 10) 안명숙, 송광사 조사도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1호, 1994.
- 11) 선암사, 승주군 남도불교 문화연구회, 1992, p.187.
- 12) 中村宗一, 全譯 正法眼藏 권4, p.176.
- 13) 保刈禎子, 상계서, p.169.

- 14) 임영자, 한국 종교복식, 아세아문화사, 1990, p.112.
- 15) 대정 신수대장경, 오분률 26.
- 16) 한국불교원, 한국의 사찰 6 -송광사-, 일지사, 1977.
- 17) 梅津次郎, 鎌創時代大和繪肖像畫の系譜, 불교예술 23, 매일신문사, 198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o the costumes in a portrait of the Buddhist

Monk of JUN-NAM's local Temple.

The Kasa was used to base of the rule because this was not our's own costumes. Therefore size, form, wearing-assistance ornament of Kasa were to similiar to the rule's Kasa. But in case of color were used to pink, yellow, chestnut except the red color.

A Buddhist monk's robe were putted on adapt to climate in our nation. Without special condition, a Buddhist monk's robe were used to varied color, that is grey, green, pink, blue, (light, navy) blue, chestnut etc.